

이토록 소중한 은메달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차민규

골반 부상 정상훈련 소화 못했지만 평창 이어 2개 올림픽서 실력 증명

한국 선수단에 두번째 은메달을 안긴 차민규(의정부시청)의 불굴의 스포츠 정신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골반 부상으로 인한 재활과 보강 치료 때문에 메달 후보에도 들지 못했지만 당당히 올림픽 시상대에 섰다.

차민규는 지난 12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경기에서 34초 39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따냈다. 차민규는 2018년 평창 대회에 이어 이 종목 은메달을 2개 대회 연속으로 따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은메달리스트인 차민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시리즈 4개 대회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뒀다.

그는 월드컵 1차 대회 남자 500m 1차 레이스에서 18위에 그치며 디비전 B(2부리그)로 밀려났고, 이후에도 10위권 밖에 맴돌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메달권과 멀어지는 듯했다.

그는 월드컵 1~4차 대회 8차례 레이스 중 1부리그 10위 안에 든 건 딱 한 차례, 2차 대회 1차 레이스(7위)뿐이었다.

문제가 있었다. 차민규의 소속팀 의정부 시청의 제갈성렬 감독은 “차민규는 골반 부상으로 인한 재활과 보강 치료 때문에 정상적인 훈련을 소화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아울러 스케이트(날) 문제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차민규는 다른 선수보다 장비에 예민한 편인데, 장비 문제가 생기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차민규는 월드컵 4차 대회가 끝나고 몸 상태를 끌어올리며 이를 악물고 훈련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장비 담당 코치로 활동한 장철 코치의 도움을 받아 스케이트 날을 정비했다.

일련의 과정은 심리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쳤다.

사실 차민규는 12일 중국 베이징 국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었다.

앞서 달린 중국의 가오팅위가 올림픽 신기록(34초32)을 세우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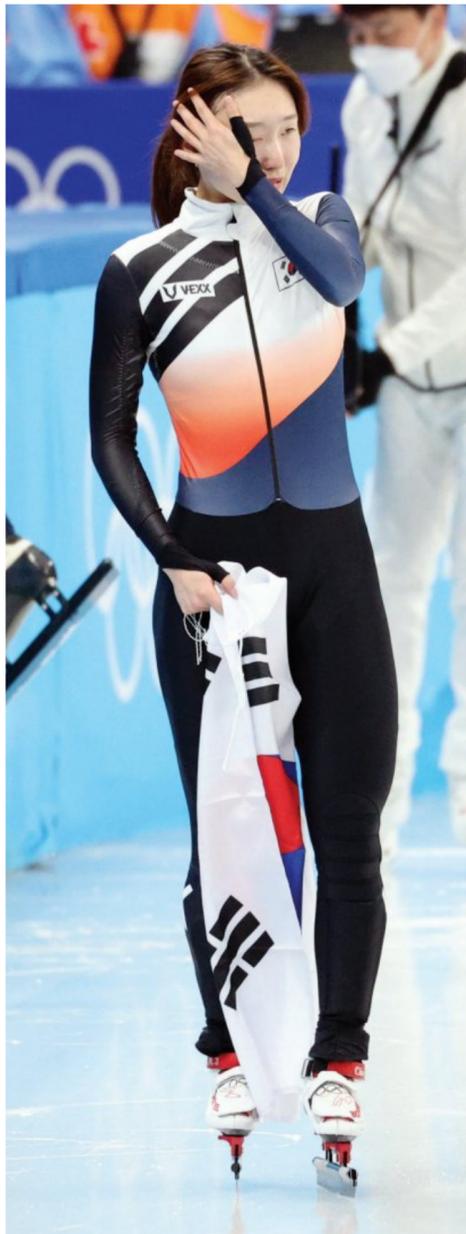
메달 후보로 꼽히던 대다수 선수는 가오팅위의 기록을 의식한 듯 무리한 주력으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다. 그러나 차민규는 침착하게 자신의 레이스를 펼쳤다.

차민규는 장비 문제 해결이 은메달 획득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 후 “뒤늦게 스케이트 날이 제대로 잡혔다”며 “만약 월드컵 시리즈 때부터 완벽한 장비로 경기에 임했다면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쳐 더 좋은 성적을 냈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차민규가 12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500m 경기에서 2위로 은메달을 획득한 뒤 태극기를 들고 경기장을 돌고 있다. /연합뉴스



최민정이 11일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미터 결승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눈물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쇼트트랙 여자 1000m 최민정

올림픽때마다 넘어지는 지독한 불운 그동안의 마음고생에 하염없는 눈물

지독한 불운에 울었던 최민정(성남시청)이 은메달을 따내고 다시 울음을 터트렸다.

이번 동계올림픽 출전 선수 가운데 최민정은 가장 운이 나쁜 선수로 꼽혔다. 여자 500m 준결승에서 넘어져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고, 혼성계주 2,000m에서 팀 동료 박장혁(스포츠포토)이 넘어지는 바람에 예선 통과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민정은 대한민국 선수단에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세 번째 메달을 안겼다.

최민정은 지난 11일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1분28초443의 기록으로 쥘리아 슈윙팅(네덜란드·1분28초391)에 이어 0.052초차로 밀려 2위를 차지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경기는 한국 대표팀 간판 최민정(성남시청)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당시 결승에 진출해 대회 3관왕에 도전했던 최민정은 마지막 바퀴를 알리는 종과 동시에 외곽 치기로 가속을 붙이며 역전을 노렸다. 그런데 대표팀 동료 심석희(서울시청)와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져 그대로 쓰러졌다. 금, 은메달을 노렸던 한국 대표팀은 해당 종목에서 ‘노메달’에 그쳤다. 최민정은 충격을 받았는지 눈물을 흘리며 공동취재구역(믹스존)을 통과했다.

3년 8개월 뒤, 평창올림픽 여자 1,000m 결승 경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10월에 심석희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코치 A와 동료 코치 육설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됐다. 메시지 중에는 평창올림픽 여자 1,000m 결승에서 고의 충돌을 의심해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심석희가 최민정을 겨냥해 고의 충돌을 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민정은 큰 충격을 받았다.

최민정의 소속사는 “최민정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신적인 어려움과 불안 증세에 시달렸다”고 전했다.

어쩌면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여자 1,000m 무대에 서는 것은 최민정에게 작지 않은 용기가 필요했는지 모른다.

이미 최민정은 이번 대회에서 심각한 불운을 두 차례나 겪었다. 500m에서는 본인의 실수, 혼성계주에서는 동료가 넘어져 좌절해야 했다.

그러나 최민정은 아픔과 한이 서려 있는 여자 1,000m 출발선에 섰다. 11일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경기장에서 당당히 베이징올림픽 여자 1,000m 결승에 출전, 값진 은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1위와 불과 0.052초 차이였다.

경기가 끝난 뒤 최민정은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떠올랐는지 모른다. 금메달은 아니지만, 분명히 가치 있는 은메달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여자 컬링, 연장 혈투 끝 중국에 5-6 패배

2승 2패 10개 팀 중 6위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이 중국에 연장전 패배를 당했다.

우리나라 컬링 여자 국가대표 팀 김(김은정·김경애·김초희·김선영·김영미)은 13일 중국 베이징의 국립 아쿠아티센터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컬링 여자 풀링 4차전에서 중국에 연장전 끝에 5-6로 졌다. 9엔드를 득·실점 없이 마친 한국은 마지막 10엔드에서 1점을 만회,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갔으나 연장에서 1점을 내줘 결국 1점 차 패배를 당했다.

2승 2패가 된 한국은 10개 나라 가운데 6위로 순위가 밀렸다.

1위는 5전 전승의 스위스다. 3승 1패의 일본이 2위, 미국과 스웨덴, 영국이 나란히 3승 2패를 기록해 공동 3위다.

한국은 14일 일본과 4강 진출을 위한 분수령에서 맞대결한다.

우리나라 컬링 여자 4인조 국가대표 팀 김(김은정·김경애·김초희·김선영·김영미)은 14일 밤 9시 5분(한국시간) 중국 베이징의 국립 아쿠아티센터에서 일본을 상대한다.

후지사와 사츠키 스키이 이끄는 일본은 요시다 유리카, 요시다 치나미, 이시자키 고토미, 스즈키 유미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회 여자 컬링은 10개 나라가 출전해 풀링을 벌인 뒤 상위 4개국에 4강 토너먼트에 오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국과 일본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당시 두 나라는 풀링 맞대결에서 일본이 7-5로 이겼으나 풀링 순위는 한국이 1위(8승 1패), 일본 4위(5승 4패)였고 준결승에서 다시 만



13일 중국 베이징 국립 아쿠아티 센터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컬링 여자 단체전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 팀십 김은정이 스톤의 방향을 지시하자 중국팀 선수들이 뒤에서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나 한국이 8-7로 승리했다. 최종 결과는 한국이 은메달, 일본이 동메달이었다. 올해 베이징 올림픽 멤버도 평창과 비교해 한국

은 똑같고, 일본은 모토하시 마리가 이시자키 고토미로 바뀐 것이 유일한 변화다. 한국은 이날 오전에는 미국과 먼저 5차전을 치

르고, 오후 경기로 일본을 상대한다. 일본 역시 이날 오전 중국, 오후 한국 순으로 연전을 벌인다. /연합뉴스

올림픽 최고령 관련 기록이 3개 1972년생 스피드스케이팅 출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중반에 접어드는 가운데 벌써 많은 기록이 나와 올림픽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먼저 이번 대회에서는 최고령 관련 기록만 벌써 3개나 나왔다.

스피드스케이팅에 출전한 클라우디아 페히슈타인(독일)은 역대 동계올림픽 여자 선수 최고령 기록을 세웠다.

1972년생으로 22일에 만 50세가 되는 페히슈타인은 여자 3,000m 최하위에 머물렀지만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 루지 종목에 만 48세 305일로 출전한 앤 애버내시(미국령 버진아일랜드)의 동계올림픽 여자 선수 최고령 기록을 깼다.

또 같은 종목의 이레인 뷔스트(네덜란드)는 스피드스케이팅 최고령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1986년생 뷔스트는 이번 대회 여자 1,500m에서 만 35세 312일 나이로 우승, 종전 스피드스케이팅 최고령 금메달 기록인 2010년 밴쿠버 대회 다니엘라 톰스(독일)의 만 35세 99일 기록을 넘었다.

뷔스트는 또 5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최초의 선수가 됐다. 그는 2006년 토리노 대회를 시작으로 2010년 밴쿠버, 2014년 소치,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에서 모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개를 따낸 역대 동계올림픽 최다 메달 부문 3위(12개)에 올랐다.

알파인 스키에서도 최고령 기록이 나왔다.

요안 클라레(프랑스)는 알파인 남자 활강에서 준우승, 알파인 스키 최고령 메달리스트가 됐다.

1981년생으로 41세인 클라레는 종전 기록인 2014년 소치 대회 슈퍼대회전 동메달리스트 보드 밀러(미국)의 36세를 5년 정도 앞당겼다. /연합뉴스